

새로운 인생 여행지로 떠오른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카자흐스탄 안내자료



카자흐스탄 국가 정보

정식 국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 누르술탄 (Nur-Sultan) (구 아스타나)

면적 : 272만 4천km². 한반도의 11.6배, 남한의 27배

행정구역 : 14개의 주(Oblast)와 3개의 특별시

정부형태 : 공화국, 독재적 대통령 통치

국기 : 하늘색 - 카자흐스탄의 민족과 문화의 조화,

전통문양 -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

태양 - 풍요로움과 번영, 햇살 - 풍요로움과 번영의 기초

황금 독수리 - 독립과 자유, 나라의 미래를 향한 비상

GNI : 1인당 \$9,139 (2019년 기준) 세계 71위

인구 : 18,897,898명 (2021년 기준) 세계 64위

대통령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통화 : 텡게(Tenge) 1텡게 = 약 2,65원 (2021년 7월 기준)

언어 : 국가어 - 카자흐어, 공용어 - 러시아어

종교 : 이슬람교 70.2%, 기독교 26.2%, 그 외 유대교 불교 등

국기



국장

카자흐스탄 지도



카자흐스탄 여행을 위한 기본 정보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바자르), 역 앞 등에는 소매치기들이 많으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주택가 도로나 골목이 어둡기 때문에 가능한 야간 외출은 삼가야 합니다.
-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문화 지역에 속하므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를 받은 정해진 장소(교회) 이외에서의 선교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구류,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카자흐스탄은 135개 민족이 거주하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가운데 인종, 종교간 화합 포용을 강조하는 만큼 현지인 접촉 시에는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부의 과시나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언동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 카자흐스탄에는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나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기압이 낮으며, 매우 건조하여 기후에 따른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 여름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40도까지도 올라가며, 자외선도 강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 선글라스, 모자 등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고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에 의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먹는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여 드셔야 합니다.

알마티 도시 정보

위치 : 카자흐스탄 남동부

면적 : 682km²

경제 : 중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며 카자흐스탄 GDP의 20%를 기여

정 구역 : 6개(알말린스키, 아우예조프스키, 보스탄디크스키, 제티수이스키, 메데우스키, 투르크시프스키)

인구 : 1,977,011명 (2021년 기준)

인구 밀도 : 2636명/km²

역사 : 19세기 러시아의 요새로 출발한 도시 알마티는 1917년에는 인구 3만 4,000명인 소도시였다. 1930년 투르크시프 철도의 개통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인구가 13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1997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 수도로 명성을 드높였다. 1997년 12월에 수도가 아스타나(Astana)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도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옛이름 알마타는 사과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과거 사과나무가 많고 우량품종의 사과로 유명했다. 현재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로서 경제 · 문화 · 교육의 수도이다.

국기



국장

알마티 국제공항

알마티주의 관문공항으로 주도인 알마티에서는 북동쪽으로 18km 떨어져 있다.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공항중 하나로 연간 이용객은 4백만 명 정도이다. 공항은 1935년 처음 개항을 해서 알마티와 모스크바 구간을 운항했다. 1999년 청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2004년 신청사를 건립했다. 활주로는 450로 2개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알마티로 가는 국적 항공사는 아시아나가 운항을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적 항공사는 에어아스타나가 운항을 하고 있다.



알마티 기후

남동부의 자이리스키, 아라타우산맥 산록의 해발고도 600~900m에 위치한다.

여름은 40°C까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은 대략 -15°C~-20°C 정도이다. 그러나 여름의 경우 별로 습하지 않고, 겨울의 경우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한국보다 여름은 시원하게 느껴지며 겨울은 그리 춥지 않게 느껴진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참조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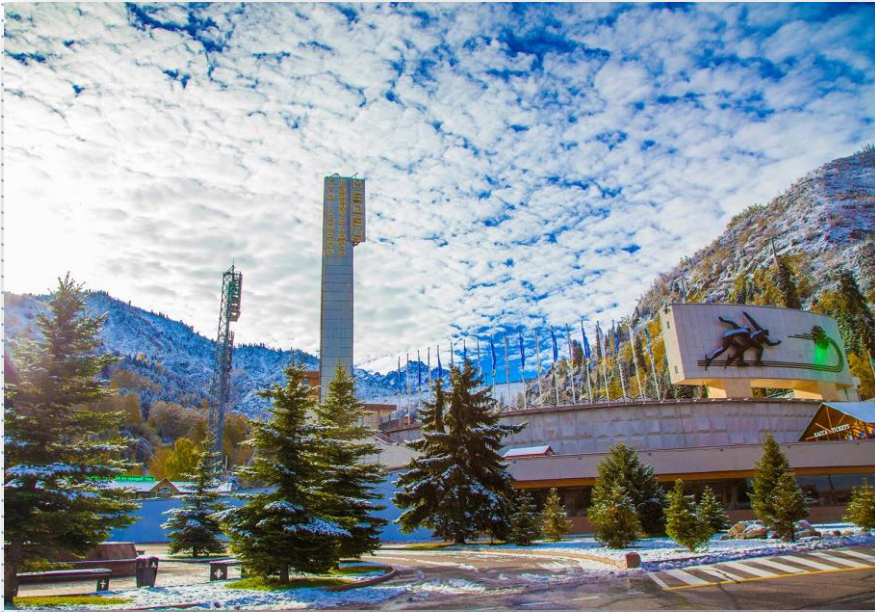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기온(°C)	-1.3	0.2	7.1	16.5	21.7	26.5	29.7	28.8	23.4	15.9	6.2	0.4
최저기온(°C)	-11.1	-9.5	-2.4	5.6	10.9	15.2	17.6	16.3	11	4.6	-3.3	-8.8
강수량(mm)	33	38	62	109	104	58	35	27	28	59	51	37

침블락

침블락 스키리조트는 해발 2200m의 자일리스키 알라타우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알마티 시내에서 25km 떨어져 있는 만년설이다 알라타우계곡에서 곤돌라를 2번 갈아타면 해발 3200M까지 30 분 만에 올라간다. 정상 높이는 3400M에 이른다.



메데우 - 침블락 <케이블카 탑승>



메데우 (Medeo), 침블락 만년설

높은 산중에 위치한 스케이트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이다(해발 1,529m). 이 스케이트장은 1972년에 건설되었고, 스피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이 열린다. 메데우는 시내에서 레니나(도스틱)를 타고 쪽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는 그 길도 아름답다. 그리고 보통 이 길도 모두 '메데우'라고 부른다





중앙역사박물관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유목역사와 문화로 시작해
구소련시대를 거쳐 현재의 카자흐스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젠코바 성당

공원 중앙에 위치한 젠코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다.
이 성당은 1904년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건축된
것으로 유명하다. 높이는 50m 정도이고 1911년의
리히터 규모 8.2의 대지진에도 부서지지 않고 견딘
것으로 유명하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예배가
진행되지 않다가, 1995년 러시아 정교회로 반환된 후
1997년부터 다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



판빌로바 28인 전사공원

2차 세계대전 28인의 청동조각상이다. 이 28인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여기서는 위대한 애국전쟁이라고 부른다) 당시, 모스크바 근교까지 독일군이 왔을 때 316보병사단의 1975연대 소속의 28인의 전사가 독일군 탱크 50대에 저항하여 필사로 저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이 알마티 시에서 창설되었고 이반 판빌로브 대위가 지휘를 했다고 한다.



질료니이 바자르

(녹색 시장)

알마티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다. 번역을 하면 '녹색시장'이는 뜻으로 사계절 내내 푸름 채소들과 과일, 육류, 생필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알마티에서 소비되는 야채 대부분을 사계절 공급하기 때문에 녹색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중에는 고려인들도 보이는데 김치와 콩나물, 두부, 김밥, 각종양념 등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번쯤은 현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서민들이 사는 풍습을 체험하는 것도 좋다.

차린계곡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조각된 사암 바위를 식방한 당 위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꽃피우는 희귀 동식물을 구경하며
경도 보니 어느새 눈앞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차게 흐르는 차린 강이 나타난다. 알마티로 돌아 가기 전 전망대에 들러
다시 한 번 협곡을 눈에 담는다. 대지를 가르며 한없이 뻗어 나가는 천국이 마치 카자흐스탄의 거친 자연으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진다. 미처 보지 못한 넓은 사막과 광야 그리고 그 위를 바람처럼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감사합니다.